

반등 노린다...김주형·김시우 PGA 텍사스오픈 출격

‘톱10’ 중 오베리·마쓰야마만 출전...김시우, 마스터스행 도전
LIV 골프는 마이애미서 열려...장유빈, 시즌 첫 톱10 진입할까

‘마스터스 전초전’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발레로 텍사스오픈(총상금 950만달러)이 한국시간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TPC 샌안토니오 오크스 코스(파72·7438야드)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올해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앞두고 펼쳐지는 마지막 PGA 투어 대회로, 주요 선수들은 대부분 출전하지 않는다.

세계랭킹 ‘톱10’ 중 도전장을 낸 선수는 5위 루드비그 오베리(스웨덴)와 6위 마쓰야마 히데키(일본)뿐이다.

오베리는 지난 2월 PGA 투어 특급 대회인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했으나 지난 달 ‘제5의 메이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컷 탈락하는 등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인다.

마쓰야마도 시즌 개막전인 더 센트리에서 우승했으나 이후 단 한 번도 ‘톱10’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 역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컷오프됐다.

2021년 마스터스 우승자인 마쓰야마는 이번 대회를 통해 부진 탈출을 노린다.

두 선수 외에 세계랭킹 상위권 선수 중에선 11위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 14위 키건 브래들리, 15위 패트릭 캔틀레이(이상 미국)가 눈에 띈다.

디펜딩 챔피언 악샤이 바티아(미국·23위)와 텍사스오픈과 끈끈한 인연을 가진 코리 코너스(캐나다·21위)도 출전한다.

코너스는 통산 두 차례 우승을 모두 텍사스오픈(2019년, 2023년)에서 거뒀다.

PGA 투어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파워랭킹에서 코너스의 우승 가능성을 가장 크게 봤다.

한국 선수는 김시우, 김주형, 이경훈 3명이 출전한다.

통산 4승을 거둔 김시우는 올 시즌 단 한 번도 톱10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등 고전하고 있다.

김주형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월 PGA 투어 특급 지정대회(시그니처 이벤트)인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공동 7위로 선전했으나 이 대회를 제외하면 30위권 내에 진입한 적이 없다. 그는 이번 대회를 뒀 뒤 마스터스에 출전한다.

이경훈도 최근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다. 올 시즌 출전한 10개 대회 중 7개 대회에서 컷 탈락하거나 기권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트럼프 내셔널 도람 골프클럽(파72·7701야드)에서는 LIV 골프가 벌어진다.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엔 총 54명의 선수가 총상금 2500만달러를 놓고 실력을 겨룬다.

LIV 골프에서 뛰는 유일한 한국 선수인 장유빈은 이번 대회에서 자존심 회복을 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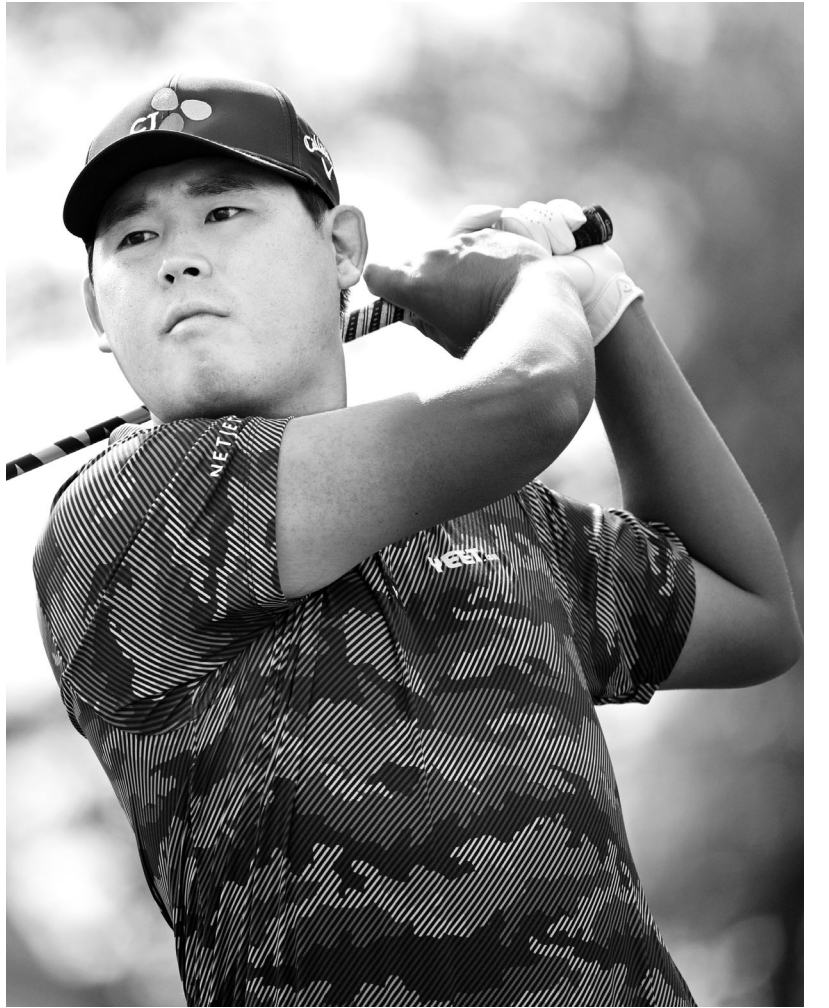
지난해 KLPGA 투어를 평정한 장유빈은 올 시즌 LIV 골프에서 해외 무대의 높은 벽을 체감하고 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개막전에서 공동 49위, 두 번째 대회인 호주대회에서 공동 23위에 그쳤다.

세 번째 대회인 홍콩 대회(공동 40위)와 네 번째



김주형



김시우

대회 싱가포르 대회(공동 41위)에서도 실통치 않았다.

LIV 골프 개인 랭킹 46위를 달리는 장유빈은 이번 대회에서 첫 톱10 진입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올 시즌 2승, 통산 4승을 거둔 호아킨 니만(칠레)

은 LIV 골프 최다인 5회 우승 타이거를 노린다.

올 시즌 4개 대회에서 모두 톱10에 이름을 올린 람(스페인), 홍콩대회 우승자인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개막전 2위를 비롯해 올 시즌 3차례 톱10을 달성한 세바스티안 무뇨스(콜롬비아)도 우

승 후보로 꼽힌다.

지난 대회 우승자인 딘 버미스터(남아프리카공화국)는 2연패에 도전한다. 버미스터는 지난해 마이애미 대회에서 가르시아를 두 차례 연장 끝에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유도 꿈나무들, 전국 유도연맹전 금빛 메치기

광주 권도연·김수민 여초부 금
금 3·은 4·동 10개 등 17개 메달

2025년도 초·중·고등학교 유도 연맹전에서 광주·전남지역 선수들이 선전했다.

1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끝난 ‘제53회 춘계 전국 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에서 광주·전남 선수들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등 17개의 메달을 얻어냈다.

여초부 -48kg급 권도연(광주거점스포츠클럽)과 -57kg급 김수민(광주거점스포츠클럽)은 금메달을 따냈다. -36kg급 장혜람(순천신흥초)과 +57kg급 문늘해랑(법성포초)은 은메달을, -42kg급 김민재(순천신흥초), +57kg급 김채현(광양마동초)는 동메달을 얻어냈다.

여초 단체전에서는 순천신흥초가 2위를 차지했다.

남중부에서는 정은성(-73kg급, 광주제중)이 은메달을, 박은찬(-51kg급, 순천신흥중)과 박원탁(-55kg급, 광주제중), 임동화(-90kg급, 광주제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린 ‘제53회 춘계 전국 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에서 여중 단체전 1위와 남중단체전 3위를 차지한 광주체육중학교 유도선수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체육 제공〉

중), 황태산(+90kg급, 광주문산중)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여자중등부에서도 -52kg급 박선정(광주제중)과 -57kg급 김민경(순천신흥중)이 동메달을 획득하며 메달을 쌓았다.

광주제중은 여중 단체전에서 1위를, 남중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하며 메달을 더했다.

광주제고는 남고단체전에서 3위에 올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신진서 반격의 1승...맥심커피배 2국서 이지현에 설욕

7일 최종 3국서 우승컵 결정

신진서(25) 9단이 맥심커피배 결승 3번기를 최종국으로 끌고 갔다.

신진서는 2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마이다스호텔 & 리조트에서 열린 제26기 맥심커피배 입선 최강전 결승 3경기 2국에서 이지현(32) 9단에게

164수 만에 백 불계승했다.

이로써 1승 1패가 된 맥심커피배는 7일 열리는 최종 3국에서 우승컵의 주인이 가려지게 됐다.

3국에서 신진서가 승리하면 대회 3연패를 달성하게 된다.

반면 이지현이 3국을 이기면 2020년 제21기 이후 5년 만에 맥심커피배 정상에 오르게 된다.

지난 1국에서 상대 진영에 뛰어들었다가 대마가 잡혀 불계패한 신진서는 2국에서는 백을 잡고 상변에서 하변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모양을 구축했고 흑돌을 양분해 상변 7점을 잡으면서 우세를 확보했다.

기세가 오른 신진서는 중앙 흑돌까지 공격하며 대마를 잡아 KO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KLPGA 최다승’ 신지애 “본인 잘 파악해야”

두산 위브 챔피언십 앞두고 기자회견
오랜 선수생활 꿈꾸는 후배들에 조언

“자신을 누구보다 잘 파악해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최다승인 20승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국내외에서 통산 65승을 거둔 신지애(사진)가 KLPGA투어 후배들에게 묵직한 조언을 건넸다.

신지애는 KLPGA투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개막을 하루 앞둔 2일 부산 동래 베네스트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오랜 기간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하는 비결을 묻자 “나에 대한 빠른 분석”이라고 웃으며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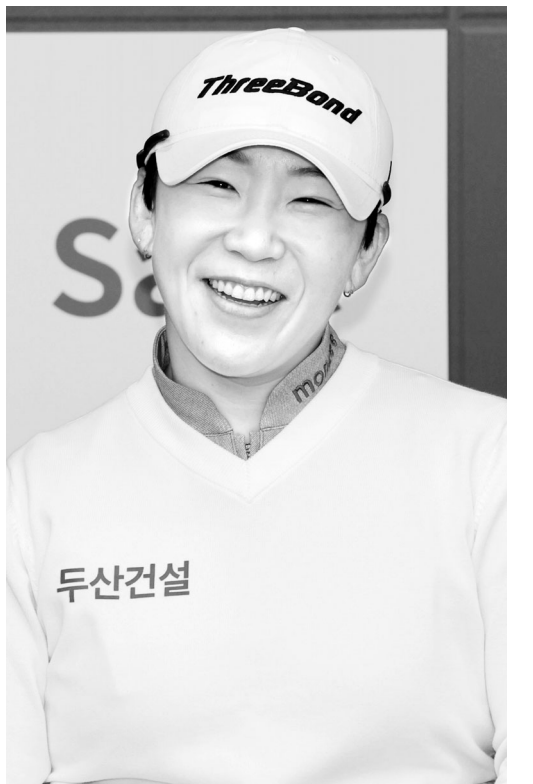
그는 “나는 안될 때 왜 안 되는지 빨리 분석한다. 나에 대한 데이터가 아주 많다. 빨리 분석하고 빨리 대책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신지애는 “자신을 잘 파악해야 한다. 아는 만큼 이겨낼 수 있다”면서 “코치를 비롯해 옆에서 돕는 팀이 아무리 많고 유능해도 결국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애는 “후배들도 자신을 잘 아는 선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우승도 많이 했지만 컷 탈락이 좀처럼 없는 신지애는 “사실 컷 탈락하는 선수를 보면 조금 놀랍고 이상하다고 느껴진다”고 운을 뗀 뒤 “나는 코스 안에서 상황에 잘 대처한다. 그래서 컷 탈락이 드물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8일에 37번째 생일을 맞는 신지애는 “후배들을 만나면 나처럼 오랫동안 골프 선수로 뛰고 싶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서 “그런 말을 듣다 보



면 내가 후배들의 거울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보기가 되려고 더 노력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지애는 “내가 가진 기록을 후배들이 넘어서길 바란다. 그래야 골프가 발전하는 것”이라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3, 4일 1·2라운드에서 동반 플레이를 펼치게 된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디펜딩 챔피언 황유민이 “더없이 영광이다. 이렇게 많은 우승을 한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니 많이 배우겠다”고 말하자 신지애는 “나도 후배한테 배울 게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기획공연 포커스 박종성×김형석 프로젝트 '그대, 다시'

일시 : 2025-04-17(목)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자연은 그렇다 환경은 그렇지 않다 : 추순정 개인전

일시 : 2025-3-28(금)~2025-4-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